

# “수 만분의 1의 기적 함께 만들어요”

## 동명대 조혈모세포 희망 기증자 1천명째 기증자 탄생

생명나눔 조혈모세포 천번째 기증자가 4월 2일 동명대에서 탄생했다. 수만분의 1의 기적 조혈모세포 기증 현장 캠페인이 지난 4월 1일~4일까지 부산 동명대 산학협력관 앞홀에서 거행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 등록 기관인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동명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들을 현장에서 모집 천번째 기증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포를 기증해야만 이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열어 생명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1,000번째로 기증 희망을 등록한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김정수 학생은 “조혈모세포 1000번째 기증등록 희망자와의 만남”에서 “헌혈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또한, 뜻하지 않게 1,000번째 기증자로 선정되어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다.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 만큼 많은 이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1,000번째 기증자로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홍보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1,000번째 기증자와의 만남 행사에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 설동근 동명대 총장, 동명대 재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 불교학과 김정수 학생 주인공 “많은 이들 동참하길 바란”

조혈모세포는 혈액세포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일명 ‘어머니 세포’라고 불리는 이 세포를 적절한 시기 안에 백혈병이나 암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완치율이 매우 높다. 또한, 기증자도 2~3주 이내 회복이 가능하고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성능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직 적합성 항원형(HLA type)이 일치해야만 이식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 5%이내, 형제자매 간 25%, 타인 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확률이 극히 낮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조혈모세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수만분의 1의 기적 조혈모세포 기증 현장 캠페인이 4월 1일~4일까지 부산 동명대학교 산학협력관 앞홀에서 거행됐다.



1000번째 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김정수 학생(가운데)

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생명나눔 확산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조혈모세포 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홍보, 헌혈 캠페인 및 헌혈증, 혈소판 성분헌혈 결연 등 다양한 생명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대학교에서의 캠페인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동명대에서는 지난 2008년 280명이 동참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총 987명이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자로 등록했다. 이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지난해까지 정한 보시인 생명나눔에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에 설립된 (사)생

장 원범 스님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동명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동명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이 진정한 보시인 생명나눔에 함께 해주면 한다”고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 장병들 연비의식 마치고 ‘불자 탄생’

### 영축총림 통도사 호국연무사 수계대법회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4천여 훈련병들에게 계를 내렸다. 부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현조)에서 3월 29일에 봉행된 ‘영축총림 통도사 수계대법회’는 주지 원산 스님, 총무국장 동진 스님 등 통도사 소임 스님들과 공주 동학사 강월 40여 학인 스님, 통도사, 서운암, 백련암, 하안연꽃절 등 각 말사 신도 400여명이 동참한 야단법석이었다.



호국연무사 수계식

등을 전달했다. 또한, 우람바라(지휘자 정성민) 통도사 합창단이 찬불가에 이어 군인들의 대표 대중노래인 ‘이등병의 편지’를 음성공양해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훈련병 김영대(28)씨는 “계를 받는 것이 낯설지만, 이번 수계식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스님들의 염불과 법문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바른 생활을 영위해 남은 군 생활도 성실하게 무사히 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 총 2천 5백만원 보시금, 인재불사에

### 대한불교 석암장학회 제79기 장학금 전달식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련, 내원정사 주지)가故석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인재양성과 국가 발전을 위한 ‘대한불교 석암장학회 제79기 장학금 전달식’을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봉행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총 14명으로 동국대 학생 중 전공과 무관하게 모범적인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선정됐으며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석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회장 정련 스님은 “석암 스님은 인재불사를 가장 귀한 불사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참석한 신도님들이 대한불교석암장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면, 석암 스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성대 내원정사 신도회장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자리가 타행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 창녕 관룡사 사천왕 탱화 불사

### 4월 2일 점안식... 불교문화 맥이어

17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창녕 관룡사(주지 광우)가 4월 2일 도량 및 불자 수호를 위한 사천왕을 모셨다. 총 8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된 사천왕 탱화는 권현규 충청북도 단청장이 직접 불사를 맡아 화성 용주사의 탱화와 관룡사 사적기의 기록에 근거해 복원에 가까운 탱화들을 탄생시켰다.



관룡사 탱화 점안식

권현규 충청북도 단청장은 충청북도 단양 출신 장인으로 화성 용주사, 속리산 법주사 등 전국 100여 곳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복원했으며 지난 2001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그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 탱화 불사에 동참하게 됐다.

1733년에 집필된 신유한의 <관룡사사적기>에 의하면 관룡사는 사천왕상을 탱화로만 모셨고 사천왕상은 모시지 않은 채 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특이사항을 하나의 기록으로

만 남기지 않고 관룡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영험함을 계승하고자 했던 관룡사 주지 광우 스님은 사천왕상 대신 사천왕 탱화 불사를 선택했다.

또한, 과거 불교의식을 그대로 복원하고 불교문화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이 사천왕 탱화를 모신 사천왕 탱화 불사에 생명과 영험함을 불어 넣어 달라는 뜻을 담은 불교문화의 맥을 잇는 모범적인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부대중에게 사천왕 탱화를 공개하는 점안식 전날 저녁 6시에는 탱화를 모시는 복장(復藏)의식이 6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의 집전에 따라 거행된 이번 복장의식은 전통 불교문화를 살리고자 하는 관룡사와 통도사 율원 스님들의 취지가 실려 있기도 하다.

김나영 객원기자

## 희망의 달구별 점등식 봉축 알려

### 3월 30일 대구 동성로서

대구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식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본격 나섰습니다. 대구불교총연합회는 3월 30일 저녁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6개 종단 대표자와 신도 등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범종 모양의 한

지등에 불을 밝히는 ‘희망의 달구별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에 앞서 인근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점등식 범종식을 가진 뒤 대구백화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부처님 오신 뜻을 알렸다. 대구불교총연합회는 4월 17일~26일까지 신천둔치에서 대형등 전시와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지는 ‘달구별 관등놀이’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 마지막 날 대구 도심 일대에서 연등행진을 가질 예정이다.



대구 달구별 점등식

손문철 대구지사장

## 송림사 불교대학 17기 입학식

### 4월 2일 설법전서

조계종 제9교구 말사 칠곡군 송림사(주지 혜성)는 송림사불교대학 제17기 입학식이 4월 2일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혜선 부학장스님은 신입생들에게 “나의 본 모습은 영원한 생명이고 광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로 볼 것인가! 일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로 볼 줄 아는 지혜를 신입생들이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송림사불교대 입학식

손문철 대구지사장

## 치매노인 위한 ‘참좋은 기억 학교’

### 3월 31일 개소식

한국불교대학 대관읍사가 설립한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이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다. 영남불교

대학 복지재단은 3월 31일 대구시 남구 대명로에 위치한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참좋은 기억학교’ 개소식을 가졌다. 대구시가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로 지정한 ‘참좋은 기억학교’는 경증 치매어르신 40명을 낮 동안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전문요양원, 무의탁 아동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 6곳으로 늘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세븐스타 편백 온열 보료 / 침대

관절염, 디스크, 불면증에도 좋은 온열찜질을 할 수 있는 건강 침대!

세븐스타 편백 온열 보료

[기본]

편백나무

천연가죽마감

[기본]가로1000X세로2000X높이100 (38kg) 가벼워서 이동이 간편해요!

[편백 쿼]

편백나무

편백나무마감

[편백 쿼]가로2030X세로1520X높이100 (60kg) 쿼사이즈 양쪽 따로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 보일러(엑셀파이프관)설치된 제품
- 향기요법 기능 첨가
- 전자파없음
- 보증기간 10년



편백나무 매트 사이로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향기가 솔솔~

하루종일 켜놓아도 전기료 한달 3000원 내 몸에 꼭 맞는 약재를 넣고 찜질과 아로마효과도 누리세요!

편백나무매트 내부구성

- 천궁
- 당귀
- 창출
- 백출
- 계피
- 굴피
- 등등

사용자가 간편하게 직접 약초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돌침대에 앉아만 있어도 찌르르한 전자파가 느껴지시나요?

기존 돌침대에 보료만 바꿔서 전자파 없는 세븐스타 편백온열침대로 만들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봉로 524번길 32 [www.stenergy.net](http://www.stenergy.net)  
 (주)세븐스타보일러 031)575-6608